

지리교육 내용구성 과정에 개입되는 스케일의 문제

Reconstructing Geography Education from a Scalar Perspective

류재명(서울대)

본 논문은 지리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때 어떤 스케일의 문제가 개입하게 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지리교육에서의 스케일 문제는 먼저 학습대상 지역을 설정할 때 개입한다. 소위 지역지리학의 체계로 지리교육내용을 구성할 때는 물론이고, 계통지리학의 개념과 이론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하는 사례로서 지역을 제시할 때에도 스케일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지리교육에서는 스케일의 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다. 학습대상 지역의 스케일 설정이 학습자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사례 깊게 생각하지 못한 탓이다. 마치 지리적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이한 스케일을 초월하여 전이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지리교육의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동네 스케일에서의 지리적 이해력이나 전 지구적 스케일에서의 지리적 이해력 간에는 마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어느 한 스케일에서 지리적 이해력이 길러지면 다른 스케일에서의 지역을 이해할 때에도 그 이해력이 전이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학습대상 지역의 스케일에 따라 주요하게 제기되는 지리적 질문이 달라지며,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용하게 되는 자료의 정밀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의 입지 조건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혹은 교통이 편리해서”라고 할 때, 세계 스케일에서 논의하는 경우와 국가 스케일, 혹은 도시 스케일, 또는 커뮤니티 스케일에서 논의할 때 ‘논리와 데이터’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습대상 지역의 스케일이 클수록 보다 정밀한 논리와 데이터가 요구되고, 스케일이 작을수록 보다 ‘터프한’ 논리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수준은 또 학습자의 이해 수준과 무관할 수가 없다.

우리 나라의 지리교육과정에는 커뮤니티(community), 지방(region), 국가(nation), 대륙(continent), 세계(world) 등의 스케일이 한 시기에 모두 혼재하는 방식으로 학습대상 지역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학습자가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이해해야 할 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지리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지역을 보고 그것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자 하는 일이다. 학습의 대상인 지역은 하나의 구분된 개체라기보다는 보는 자의 인식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케일은 실체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눈에 있는 자이다.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급하는 자와 그 정보를 받아 해석하는 자 간의 ‘차(scale)’가 다르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잡음’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 ‘차’, 즉 스케일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하나의 스케일에서 지역의 정보를 다루면서 지역특성을 해석해 보는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

의 계열성을 고려하면 초기 시작단계에서는 덜 정밀한 소측척의 자를 이용하고, 나중으로 갈수록 보다 세밀한 대측척의 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습자들이 스케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발견한 적절한 스케일을 고려하여 지리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